

# 제13주제 - 도시공원의 미래와 한국인의 풍경관

2016년 3월 24일

주제발표 | 조경진 (서울대학교 교수), “도시공원의 미래를 생각하다”  
성종상 (서울대학교 교수), “비가시성의 미학, 한국인의 마음풍경”

초청토론 | 이석정 (서울대학교 교수)  
진행 | 김세훈 (서울대학교 교수)

## 조경진 교수 발제요지

**도시공원의 진화:** 도시공원은 시대별로 그 의미가 진화해 왔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도시공원 1.0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런던의 하이드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큰 자연공원을 조성하여 도시의 허파로 기능하게 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여가를 즐기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왔다. 주로 위생과 여가를 위해 공원의 개념이 도입된 시기였다. 공원을 도시 인프라로 보기 시작한 20세기 중반은 ‘도시공원 2.0시기’로 볼 수 있는데, 공원과 녹지를 연결하는 그린웨이나 대형 산업 부지에 조성한 공원은 도시의 골격을 이루는 주요한 그린 인프라가 되었다. 공원이 문화와 결합되면서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도 이 때였다. 20세기 후반은 ‘도시공원 3.0시기’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공원을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공원은 일자리, 건강, 교육, 커뮤니티 활동이 행해지는 장소로 인식되었고, 운영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

어지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도시공원은 사람들이 교류를 통해 사회자본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되었으며, 공동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커뮤니티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160주년을 맞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이러한 도시공원의 진화과정을 잘 보여 준다. 19세기 중반 조성될 당시에는 산업도시의 오염과 혼잡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받고 도덕적 삶의 방식을 체험하게 한다는 생각이었고, 이후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는 어린이 놀이터, 테니스장, 야구장 등을 설치하여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서 진화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환경운동 등 다양한 사회행사가 개최되고, 최근에는 공공예술의 무대이자 관광자원으로 공원을 활용하고 있다.

**21세기의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진화과정은 공원이 시민생활, 건강과 교육, 커뮤니티 활동, 생태와 순환시스템, 예술과 기술 등 다양한 요소가 맞아 있는 공간임을 확인시켜 준다. 시장, 공원운영자, 아동학자, 부동산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조

성, 기술, 기업프로그램, 청소년 교육,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공원을 논의하는 세계도시공원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1세기의 도시공원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이루어내는 장소로서 이전 보다 훨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공원은 건강증진의 장소로서 의료보험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텃밭 가꾸기, 지역 학교의 축제, 마을 모임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교육이 장소로서 사회적 자본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공원을 통해 개인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경험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최근 지역성과 커뮤니티 개념이 공원계획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가든 바이 더 베이(Garden by the bay)의 사례에서 보듯이 휴식, 생태, 엔터테인먼트의 요소가 창의적인 방식으로 결합된 공원이자인 사례가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원의 조성 과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 정부주도의 방식을 탈피하여, 점차 시민들이 관리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 증대로 공원녹지 예산이 축소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도시공원 관리와 운영에 비영리단체, 자원봉사, 기업후원에 주목하여야 한다.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뉴욕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Brooklyn Bridge Park)나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의해 비용을 조달한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Millennium Park)는 최근 공원 운영관리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서울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성시 매향리 평화공원 계획:** 공원계획의 사례로 '화성시 매향리 평화공원'이 소개되었다. 화성시 매향리 평화공원은 과거 미군의 사격지였던 곳을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따라서 공원계획에 있어 이곳이 가진 역사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동안 사격장으로 활용되면서 사고 등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에 대한 고려가 중요시되었다. 평화공원은 '자연이 만들어가고 시간이 완성하는 공원'이라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아픔의 장소를 기쁨의 장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디자인 컨셉이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원형대로 보존하되 실내 기능을 바꾸는 공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지역 주민들

이 참여하는 운영관리계획은 매향리 평화공원계획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 부분이다. 공원을 지역주민을 위한 배움의 장소로 만들고자 가드너 프로그램, 공방 프로그램, 요리학교와 같이 지역 주민의 재교육을 위한 공간과 세미나 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을 하였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되고, 현대 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었다. 화성시는 전문가들이 공원을 운영하는 새로운 운영모델을 구축하고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성종상 교수 발제요지

**심(心)풍경과 비 가시성:** '심 풍경'이란 마음으로 짓고 즐기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풍경'은 '경관'과 차별되는데, 경관이 시각중심적인 것을 일컫는다면 풍경은 '풍(風)', 즉 기질과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풍경의 개념에는 삶의 주체가 녹아있고, 생명체의 살아 숨 쉬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풍경이 지닌 특성 중 하나는 '비 가시성'이다. 드러나는 형상보다 드러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전통이 있다. 가령, 중국의 정원은 크고 웅장하고 일본의 정원은 정교한 특성이 가지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정원은 눈으로 즐기는 정원이라기보다는 마음으로 즐겨야 하는 풍경을 가진다. 한국의 심풍경의 미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된다. 동양 산수화에서는 정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여백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추사 김정호의 세한도에서 보듯이, 한국의 산수도는 산과 물을 직설적으로 그렸다가 보다 마음을 담아 그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초상화를 그릴 때, 인물의 모습을 보이는 대로 묘사하기보다는 전신(傳神)이라 하여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 것도 이와 같다. 또한 중국의 도자기가 매우 크고 화려하고 일본의 도자기가 매우 정교하다면, 한국의 도자기는 달관적 무기교 무심의 경지를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에서도 심 풍경을 중시한 조상들의 태도가 일관되게 잘 드러나 있다.

**한국 정원에 표출된 심 풍경:** 한국 정원에서도 심 풍경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터 잡기’이다. 한국의 정원은 땅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독립된 정원을 조성하기보다는 땅의 흐름을 찾아 최소한의 땅 다듬기에 그친다. 한국 최고의 정원가라고 할 수 있는 고산 윤선도의 정원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이러한 한국 정원조성의 특성을 빼어나게 보여준다. 보길도의 세연정은 물의 정원으로서 2차 지류에 위치하는데 홍수 때 급류로 인한 침식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상류에 샘이 있어 연중 상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연지 상류 쪽에 위치하는 돌출수계는 홍수 때 흐름을 완하시켜 침식과 퇴적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담양의 소재원도 물길과 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자연과의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 자리잡고 있다. 터를 잡는 일에서 나아가 건물, 담장, 문, 화단을 배치하는데 있어서도 인공적 처리를 최소화 하면서도 빛, 바람, 절기에 따른 조망, 시선, 동선 등 사람들의 공간체험이 과학적, 공감각적으로 고려되었다. 윤선도를 비롯한 조선 선비들의 정원은 문인들의 모임과 교류의 장이었으며, 이들이 남긴 문학적 유산은 시문, 편액, 정자 등에 남아 있다. 여백을 남기면서 한국인의 내면적 욕구와 심성을 최고의 예술적 경지로 나타내고 있으며, 정자나 장소에 따라서는 신선 세계를 동경했다는 사실도 종종 발견된다. 자연과 하나가 된 한국정원은 시각뿐만 아니라 오감을 통해 체험하는 공간이자 종합예술의 장이다.

**한국 도시풍경의 현주소:** 그동안 우리는 우리 것의 특성을 차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다분히 개발에 치중해온 경향이 있다. 드러나는 형상보다 드러나지 않은 것을 존중하는 비가시적 미학과 마음 속 풍경은 땅각 혹은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네 삶의 환경은 심미성이 결여된 것은 물론 장소성과 정체성도 무시된 채 뜨내기 도시가 양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용봉산은 우리 국토경관 고유의 특질로서 빼어난 바위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방공법을 적용하여 개나리로 덮어 버렸다. 한남대교 상류의 동호지역과 마포대

교에서 양화대교로 이어지는 서호지역은 예로부터 풍광이 매우 빼어났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은 삭막하고 건조한 경관들로 채워져 있다. 구로공단의 경우도 한국수출공단 1호 공단으로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디지털단지라는 이상한 이름과 함께 아파트형 공장만으로 채워져 이전 그 땅의 흔적을 찾아볼 길이 없다.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소 가치가 경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리듬, 생명감, 변화감, 윤희감이 있다. 선조들의 뛰어난 심 풍경 만들기 전통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도시는 시간의 층위를 잃고, 균질화, 단순화, 획일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발과 도전 시대를 지나 온 현시점에서 우리 국토와 도시환경의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한국의 풍경 미학을 진지하게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 주요 토론 포인트

**일상생활과 밀착된 도시공원:** 초청토론자인 이석정 교수는 현대 도시공원의 개념적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서울의 도시공원이 과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국과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석정 교수는 독일과 비교하여 대부분의 한국 공원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벤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대공원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며 동네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경진** 교수는 약 1,700개에 달하는 근린공원과 소공원이 지나치게 시설 위주로 조성되어 있어서 이를 그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도와 가로수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우리나라 대공원의 이벤트성 이용 경향에 있지만 점차 바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영국 컨설팅기관에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원을 가는 이유는 혼자 있고 싶은 욕구라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공원이용 방식도 점차 바

꾸고 있고, 과도한 시설 위주의 설계 경향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고 답했다.

**도시공원 관련 현안문제:** 정립건축 임진우 대표(과정 32기)는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원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계층분리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의 종묘공원, 파고다공원의 경우 노인들이 주로 운집하다보니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고, 반대로 특정 공원은 주로 청소년들이 모여 비행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공원을 둘러싼 계층 분리를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할지에 대해 **조경진 교수**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 관점에서 보면 여러 계층이 섞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공간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공간적 디자인을 통해 이러한 분리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계층별 공간 분리를 막기 위해서는 공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지역 사람들이 직접 운영 관리함으로써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국에서는 공원에서 다양한 레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복지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문화경관연구소 **윤진옥 소장(과정 32기)**는 시의 예산 제약으로 인한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30%를 개발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정책이 해당 지역 주민이나 민간기업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였다. **조경진 교수**는 공공이 전부 담당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시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와 같이 공공성과 민간의 수익성을 조화롭게 보장한다면 좋은 방식 중 하나라고 답변하였다. 현대산업개발 **이종식 부사장(과정 32기)**은 수원 영흥 신도시의 예를 들어 공원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민간에 부담을 지우는 사례를 지적하였다. 시청에서 특혜시비를 회피하기 위해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공공-민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경기도청 **변영섭 과장(과정 32기)**도 시청 내 도시계획 담당부서와 공원 담당부서 사이의 의견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특혜시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통 풍경관의 현대적 유용성:** 한국의 전통적 풍경관에 대한 발표에 감명을 받았다고 밝힌 **이석정 교수**는 미학은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과거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토대로 만든 풍경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국토의 풍경이 전혀 달라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성종상 교수**는 우리나라가 항상 새로운 것을 선호하고 보존보다 개발을 추구하는 이유는 과거 급성장을 경험하면서 우리 것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현대 사회가 과거 전통 사회와 다르므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100년 뒤 후손들이 우리의 가치와 미학을 잘 지켰는지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다는 견해를 말했다. 전통적인 심풍경의 미학이 지고의 가치라기보다 너무 우리 것을 잃고 날조된 전통을 당연시 해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석정 교수**는 다시 환경은 시각화됨으로서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으므로 시각화의 중요성도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성종상 교수**는 한국정원이 시각적인 것만 보아서는 그 우수성을 알 수 없으며, 그 의미, 철학, 미학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연을 존중하고 과도한 인위성을 자제하며, 시각적으로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우리 것의 특징이고, 이런 특질은 생태, 친환경, 지속가능성과 저비용 관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동시대의 지향 가치와도 잘 부합됨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연구원 **이상용 박사(과정 32기)**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선도의 정원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윤선도의 정원철학이 우리 것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질문했다. **성종상 교수**는 18세기 이후 정원기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원기를 주고받는 것이 활발했던 점을 들어 윤선도의 땅 읽기와 만들기가 일반성을 결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뜻과 상상으로 정원을 쓰고 그리다가 여유가 있으면 실제로 정원을 조성하여 정신적 자유를 얻고, 심미적 해방을 추구하는 일이 활발히 일어나는 등 심

풍경의 미학이 일관되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자연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인구와 경제규모, 개발규모와 기술수준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면서 공존하는 개발을 추구하는데 있어 여전히 전통적 풍경관은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